“전남 숲캉스로 피톤치드 충전하세요”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장성 축령산 편백숲 7월 추천관광지 선정

전남도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캉스(숲+바캉스)’를 주제로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장성 축령산 편백숲을 7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천연림과 인공림이 조화를 이룬 곳이다. 아름드리 소나무와 삼나무, 편백나무가 가득하다. 숙박시설, 목재문화체험장, 백운산 치유의 숲 센터 등이 조성됐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고, 백운산 치유의 숲 센터에서 아로마테라피, 명상, 요가 등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숲이 주는 상쾌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다.

주변에 예향 전남의 예술성을 알리는 도립미술관, 폐선이 된 기차 터널을 개발해 와인과 예술이 어우러진 광양와인동굴이 있다. 또 1970년대 구 광양역 창고로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광양예술창고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미디어콘텐츠와 어린이 아틀리에 등 문화콘텐츠 체험이 가능하다.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은 120ha 면적에 치유의 숲 센터를 중심으로 오감연결길, 치유숲길, 큰재가는 숲길 등 산책코스가 있다. 오감연결길은 3.1km로 보행약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형 숲길이다. 치유숲길은 건강오름숲, 하늘숲, 건강회복숲, 3가지 테마숲길로 이뤄졌다. 큰재가는 숲길은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수만리 생태숲과 연결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걸어보길 추천한다.

화순 안양산 자락 무등산 양떼목장은 탁 트인 초원에서 건초먹이기 체험이 가능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고인돌문화체험, 방랑시인 김삿갓의 발길을 머물게 한 화순의 비경을 관람하는 화순적벽투어와 같은 체험형 관광자원이 많다.

‘장성 축령산 편백숲’은 국내 최대 편백·삼나무 우량 숲이다. 2021년 산림청에서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했다. 맨발숲길, 건강숲길, 물소리숲길 등 6개의 테마 숲길은 경사가 완만해 어린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여행객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축령산 주변 마을에 조성된 민박촌과 관광농원, 통나무로 지어진 금빛휴양타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강 주위로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가득해 ‘꽃강’이라 불리는 황룡강 생태공원,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 호남 불교의 요람이라 불리는 백양사 등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지로 관광객에게 꾸준히 인기가 많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삼나무, 편백나무 등 난대림과 온대림의 다양한 식생으로 피톤치드 가득한 전남 숲속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제 9대 광주 북구의회 의장단 선출. (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기초의회 의장단 윤곽…“민주당 독점 폐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광주 5개 자치구 의회의 9대 전반기 원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단독 출마하는 의장·부의장 자리를 두고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장직까지 사전 합의를 거쳐 독점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일각에선 ‘일당 독점 폐해’, ‘협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광주 각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이날 오전 9대 의회 첫 의사 일정인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 김형수(재선)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같은 당 4선의 최무송 의원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북구의회는 정수 20명 중 17명이 민주당 의원이다. 나머지 3명은 무소속 2명, 진보당 1명으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나뉜 갑·을 지역위원회가 전·후반기 의장 순서를 정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광산구의회는 의장 후보 선출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 결국 ‘뽑기’로 의장 후보를 정했다. 단독 입후보인 만큼, 사실상 ‘뽑기’로 뽑힌 의장이 선출되는 셈이다.

광산구의원 18석 중 14석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7명씩 광산 갑·을 지역위원회가 전·후반기 의장 순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두 지역위가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의회는 정수 13석 중 11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고경애(재선) 의원, 김수영(3선)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내기로 잠정 합의, 등록까지 마쳤다.

오는 7일 본 회의에서 의장단 공식 선출 절차가 남았지만 단독 출마인 만큼, 서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여성의원이 나란히 의장·부의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도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독점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회는 민주당 소속의 3선 황경아 의원을 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 역시 같은 당 남호현 의원(재선)이 단독 입후보·선출됐다. 남구의회는 의원 정수 11명 중 무소속 1명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동구의회는 전체 7석 중 5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김재식 의원을 의장 후보에, 이지애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냈다. 두 의원 모두 올해 6·1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이다.

‘절대 다수’ 민주당 안에서도 지역위 단위로 갈라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사실상 ‘전·후반기 번갈아 의장 맡기’ 관례나 민주당 광주시당의 중재에 따라 자치구별 대의기관의 지도부를 뽑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승호 기자

전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민주당 내 경선 그대로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원 구성을 위해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체 경선 결과대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독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체 의원 61명을 대상으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접수를 한 결과 의장 후보에는 민주당 4선 출신의 서동욱 의원(순천4)과 재선인 진보당 오미화 의원(영광2)이 등록했다. 1·2부의장 후보에는 3선 김태균 의원(광양3)과 재선 전경선 의원(목포5)이 각각 단독 지원해 사실상 확정됐다.

상임위원장 후보도 민주당 경선 결과와 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등록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원은 61명으로 민주당 56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김재환 기자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한국철도(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일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 71명에 대하여 본부 강당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행사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신입사원 71명(사무영업 7, 운전 29, 토목 24, 전기통신 4, 채용형인턴 7)은 호남권으로 지원하여 28.3:1의 경쟁률을 이겨내고 선발된 유능한 사원들이다.

따라서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관내 영업·기술 분야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입사원 환영 및 오리엔테이션은 경영진과의 대화의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레일의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해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이 철도와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추진

소득 별 차등지원 최대 40만 원

광주시는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 발달장애·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경우다.

정밀검사는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와 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지정된 의료기관을 찾으면 받을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우선 지급한 뒤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 등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최대 20만 원이다.

이슬비 기자

함평군 공고 제2022 – 721호

『함평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 람 및 주 민 설 명 회 개 최 공 고

함평 해보면 산내리 일원의 『함평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함 평 군 수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함평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대지조성사업
 ㅇ 위 치 :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408번지 일원
 ㅇ 사 업 량 : 99,807㎡
 ㅇ 사업기간 : 2022 ~ 2024년
 ㅇ 시 행 자 : 함평군수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7. 1 ~ 7. 28. (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공람장소 : 함평군 미래전략실
 나. 공람방법 : 함평군(www.hampyeo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설명회 개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 7. 14 13:00
 나. 장 소 :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원산경로당
4. 의견제출 및 기타
 가. 장 소 : 열람장소와 동일
 나. 방 법 : 서면 작성하여(양식은 각 열람장소에 비치) 제출
 다. 기 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까지
 라. 의견제출대상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안의 주민
 마. 의견제출 범위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바.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미래전략실(☎061-320-1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